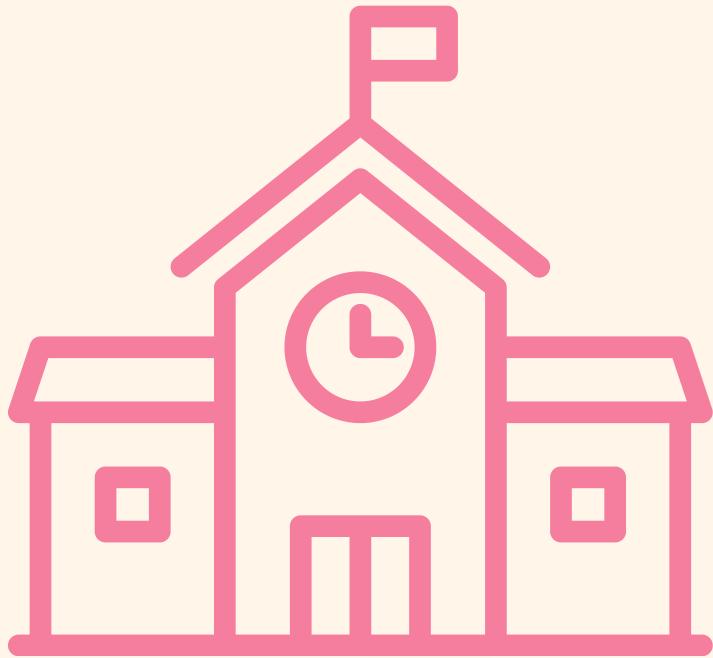


3학년의 글 모음집



남부초등학교

3학년의 멋진 글을 감상하세요

남부초등학교 우리의 글

부들부들 햄뚱이

부들부들 햄뚱이
말랑말랑 귀엽다

이름: 구사랑

3-1

삑-!! 귀여운 햄뚱이

해바라기 씨 다먹고
쿨쿨 잔다.

찌린 내 나도 귀여워

회색

뚱뚱 지금은....

무지개 다리 건넜지만...

내 맘 속에 있는
소중한 우리 햄뚱이

언젠간 또 만나!~

나 잘 살고
있다 짹!



거인 달리기

3-1 김가온

태권도장 아이들은
태권도 시간이 좋나보다

쿵쾅쿵쾅
태권도장으로
뛰어가는 소리)





펑펑펑

폭탄이 터졌다보다

팡팡팡

올수수알이

고소한 팔콘의 王

너도 먹고 나도 먹.

선나는 꽃



팝핑캔디

3-1 김리한

톡
톡톡
톡톡톡
톡톡톡톡
톡톡톡



팝핑캔디가 입 안에서 톡 터진다

내 입 안에서
불꽃 놀이를 한다

솜사탕

3-1 김민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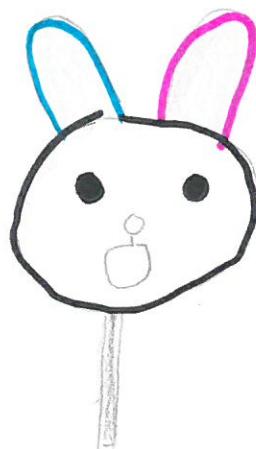
흐 흥
흐 흥 흥
흐 흥 흥 흥
흐 흥 흥
흐 흥



솜사탕이 내 입에서 녹는다



내 입 안에서
사르릉 녹는다



방귀 소리

3-1 김요선

뽕 뽕

뽕뽕뽕

뽕뽕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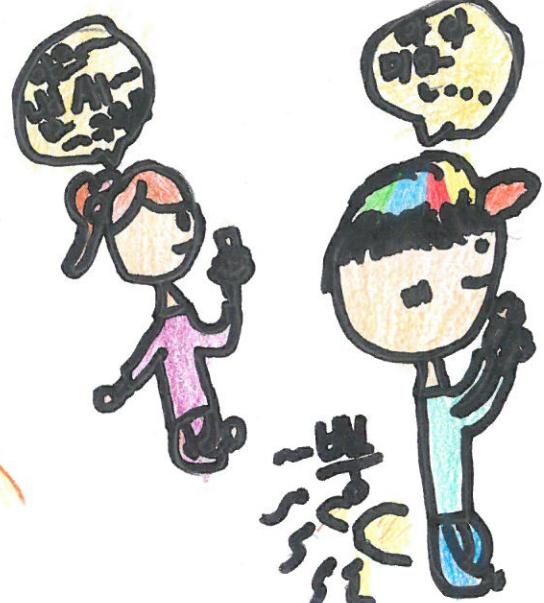
뽕뽕뽕

뽕뽕

방귀가 터진다.

내 배 속에서

방귀 놀이를 한다.



산도 대답해주는구나

3-1 김원종

돼개 높은 산에서

소리를 지르자

메아리로

돌아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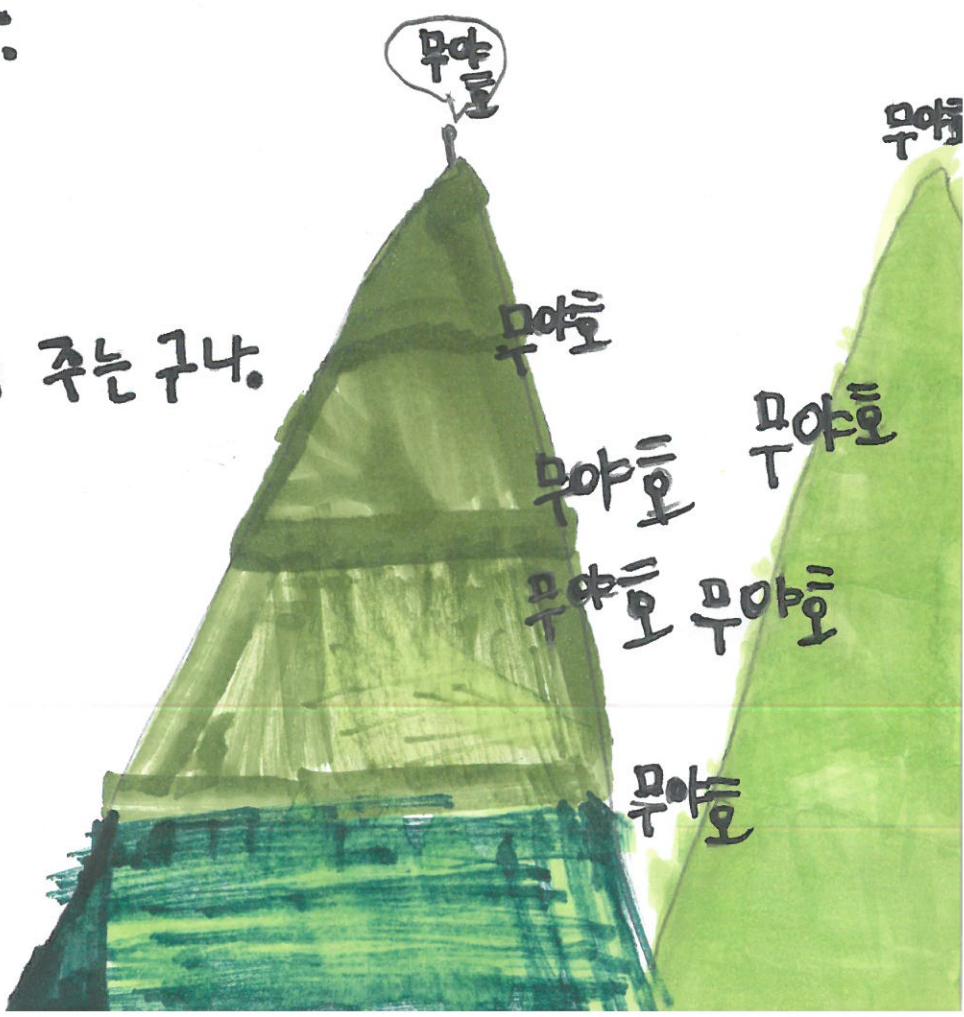
아, 내작은 신호에도

산은 대답해 주는구나.

그큰산에

이조그만 한 신호

그래도 산은 대답해 주는구나.



우유도 대답해주는구나



3-1 박하은

시끄러운 우리 집에서
이불을 꿈주락 거려
두더지 처럼 피고들었다.

우유 가
굵질 굽질 놓고 싶은지
움직였다.



주인의 작은 신호에도
우유는 대답해 주는구나 "멍멍"

그조그마한 몸짓에
이큰 행동
그래도 우유는 대답해 주는구나.



수학시간

3-1 배도윤

내 몸에
불안이 들어왔다.

-불안불안
불안이를 떠라
몹시 흥분한 흥분이도 들어왔다.
-흥분흥분

책상을 밟고 나니

-차분차분
차분이도 들어오고
까무룩
즐림이도 들어왔다

내 몸에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왔다.

내 몸이 아주 무거워졌다.



바다도 대답 해주는구나



3-1

양준모

바다 모래 밭에서

바다에 들어가

슬라 임처럼 파고 들었다.

바다가 간지러운지
찰랑찰랑 움직였다.



아 내작은 움직임에도
바다는 대답해 주는구나

그 거대한 물짓에
이 조금한 발짓



그래도 바다는 대답해 주는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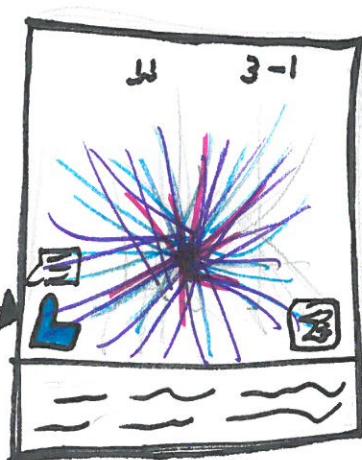
[불꽃놀이]

3-1 => 오다은
5° 등

펑!
펑! 펑!
펑! 펑! 펑!
펑! 펑! 펑!
펑!

불꽃놀이를 한다.
하늘 위에서
불꽃놀이를 한다.

종아요수
100명!





팔랑팔랑

팔랑팔랑 치즈

3-1:7이봄

팔랑 팔랑

길고양이 치즈

내 가는 곳마다 있는

치즈

팔랑팔랑

무시하고

나랑 있는

6살 치즈

도망도 안 치는

길고양이

나랑

치즈

오래 오래 놀자!



비

3-1 이서운

비
비
비
비
비
비
비
비
비
비
비

비가 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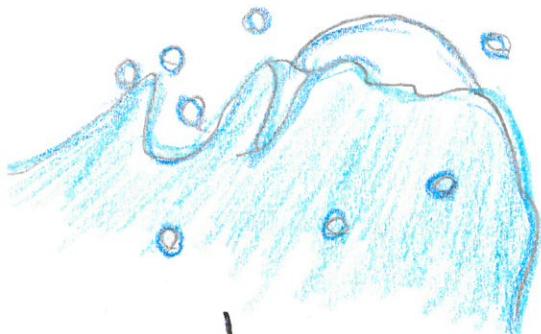


하늘 위에서
우비 입고 점령점령



바다소리

이상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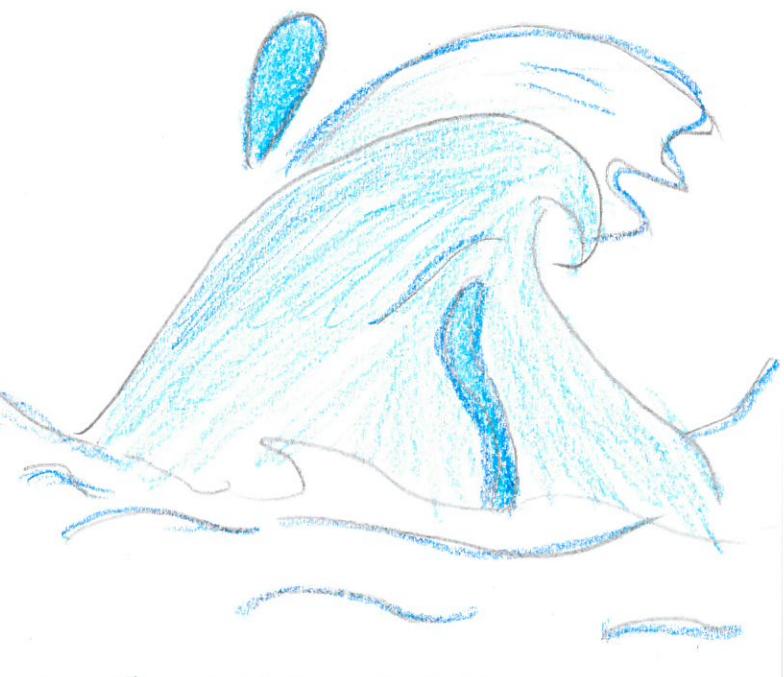
하늘에 사는 아이들도

음악시간이 있나보다.

솨아솨아,

음악실로

걸어가는 소리



맛있는 햄버거

3-1. 정선후

맛있는 햄버거

맛있는 햄버거 한이

냠냠 짹 짹 .



고기, 야채, 침개빵

속재료들이 끝맛이다.

맛있는 햄버거 매일 먹고싶다.

맛있는 햄버거 다 먹었다.

언제 먹어도 맛있다.



3-1 정소운.

우리반 애들은

불소도포가 꼼짝하나 보다.



“꺄아아아아나나!” “아니아니 안돼에에에!”

도망치려 하는

하기전. → 하고 후,

★무서운 비명소리 ★



(출시는 중)



종이도 대답해 주는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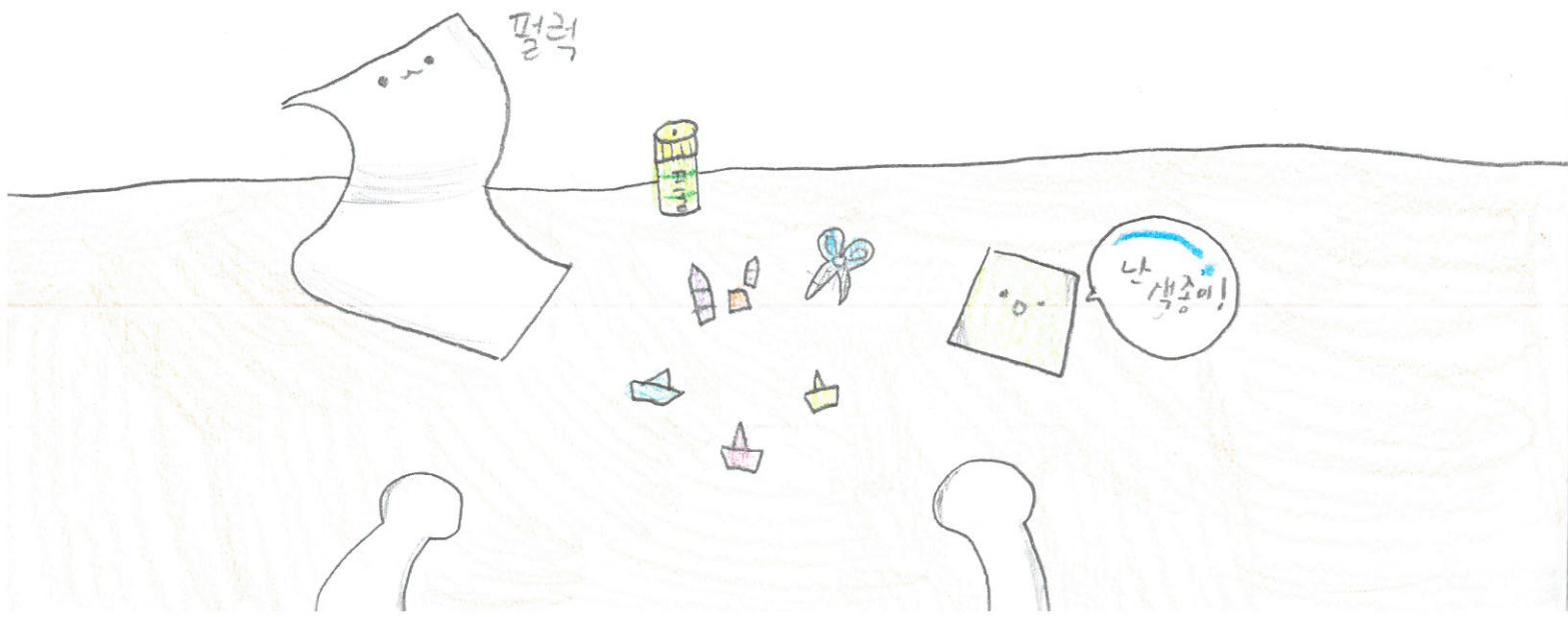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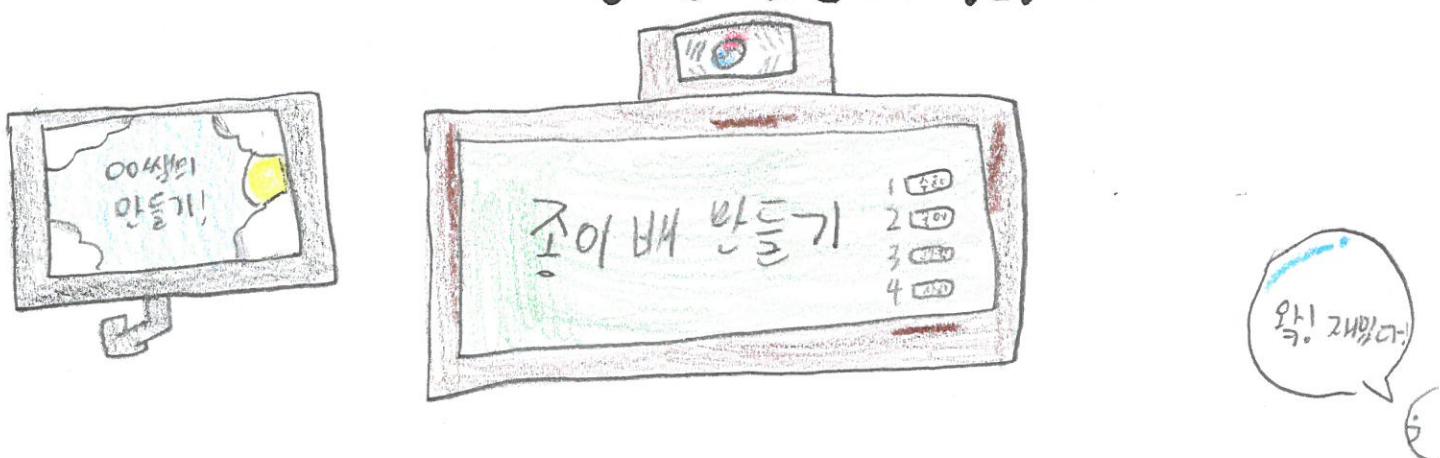
학교 평화로운 우리 반에서
만들기 해서
미어 캇처럼 바라보는.

정수민
3-1

종이가 움직이고 싶은지
펄럭 펄럭 움직였다.

아, 내 작은 선호에도
종이는 대답해 주는구나.

이 큰 몸짓에
이 조그마한 종이
그래도 종이는 대답해 주는구나



콩콩콩콩 콩이

3-1 조나연

콩콩콩콩

우리콩이

내가 나가면

멍멍 월월

내가 오면

발라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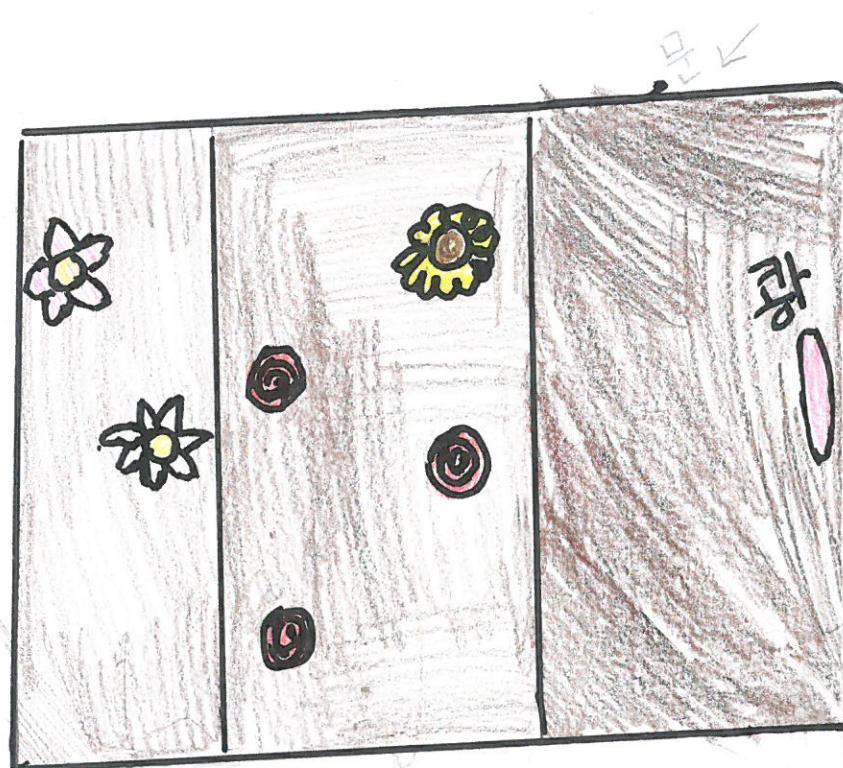
배를 만져달라

눕는 우리 콩이

언제나

짖어도 귀여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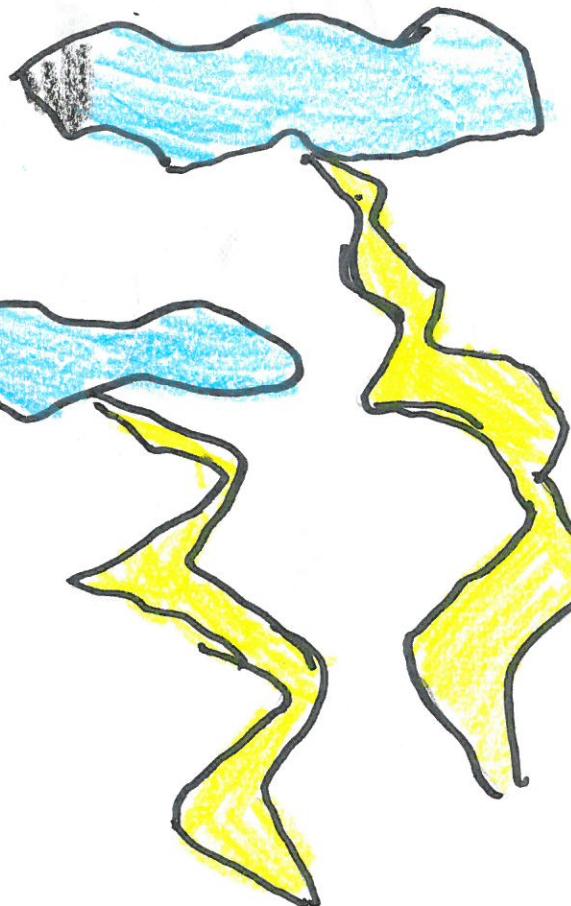
우리 콩이



천둥번개

3-1 호정우

쿵 쿵
쿵 쿵 쿵 쿵
쿵 쿵 쿵 쿵



천둥번개가 친다.

우르르 쿵쿵

하늘에서 쏘운다.

지잉지잉 패드

3-1 황찬우

지잉지잉

밥 달라고

지잉지잉

충전기를 구겨도

안달이다

지잉지잉

안내문자 왔다고

지잉지잉

카톡왔다고

또

지잉지잉



팡팡

팡

팡팡

팡팡

감귤 과즙 터진다

꽈배기

감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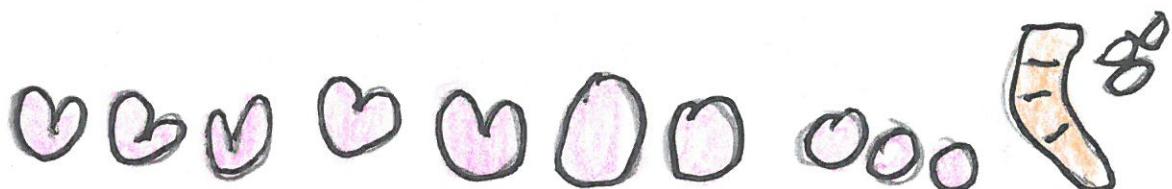
3-2

꽈그림

깍지군

조그만 내 입안에서

감귤 과즙 꽈죽을 터뜨린다.



3-27-2021

(점심시간)

3-2

지은이: 김서윤

내 몸에
밥이 들어왔다.
- 따끈따끈
밥을 따라

맛있는 반찬도 들어왔다.
- 오물오물

급식을 먹고 나니
빠른빠른
말이 들어오고
신나게

노는 아이도 들어왔다.

내 몸에
너무 많은 게 들어왔다

그래서

내 몸이 아주 무거워졌다.



라면

3-2 김여성

라면을
끓인다
보글보글
라면을 따라
계란과 파도 들어왔다
딱딱 썩둑



라면을 먹고나니
느릿느릿
침대 위로 올라와고
쿨쿨
잠꾸러기가 됐다



내몸에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왔다
그래서
아주 배불렸다

파랑김정

제목 축구

3→2 김유환

클쓴이 김유환

축구는 재밌다.

그리고 골키퍼도 있고

또 골키퍼도 있고

또 수비수도 있고

마지막 미드 피터도 있다

인천



나이키 우표



축구는 경기도 한다

골키퍼는 광활 악어야 한다

내가 하면 글을 떠밀지도 있기 때문이다

또 공격수는 끌을 쫓아어야 한다

GK
이범수

cm
김도혁

ST
무고사

25
cm
이명주

77
CB
멜보리지

20

9

인천전

파랑김정



동물도 대답해주는구나

3-2반 5번

지은이: 노은서

내가 할머니 댁을 간다.

강아지에게 내가

밥을 주려고 하자



강아지가 나에게
고맙다고 하는 것 같았다



동물도 대답해 주는구나.



복들이
밥줄께



글

3-2

글쓰이: 문소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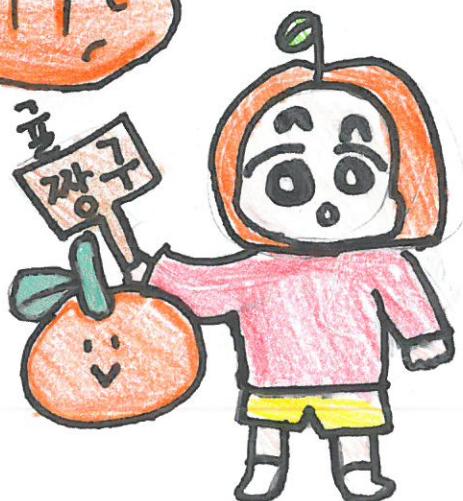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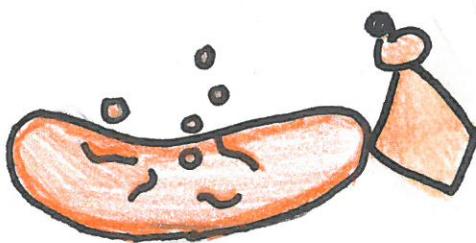
냠냠

쩝쩝
냠냠
쩝쩝
쩝쩝
쩝쩝
냠냠
쩝쩝
쩝쩝
냠냠

귤알맹이가 터진다.

작은 내입안에서

과즙 놀이한다.



외계인도 대답해 주는구나

강가 고운 모래밭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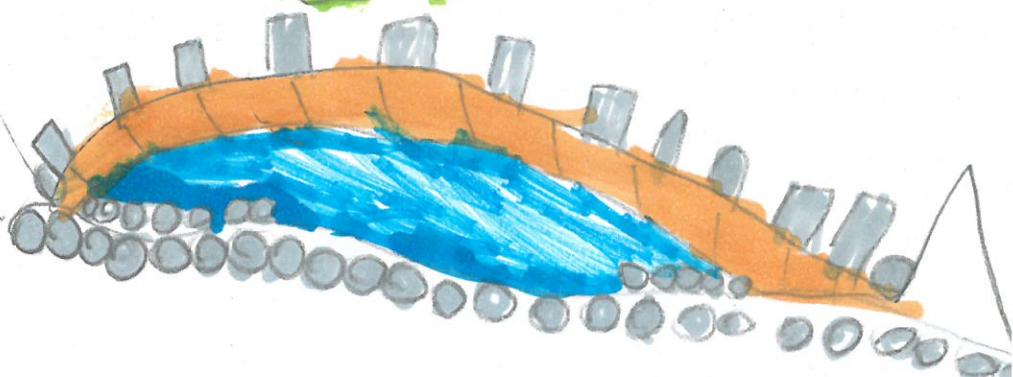
개미가 움지락거려

쇠똥구리처럼 파고들었다.

3→박현민

외계인도 간과하운지
꿈걸꿈걸 움지였다.

아, 내작은 선물에도
외계인도 대답해주는구나.



3-2

환경도 대답해 주는구나

글: 서혜원

환경이 화나면
폭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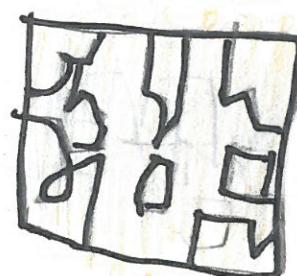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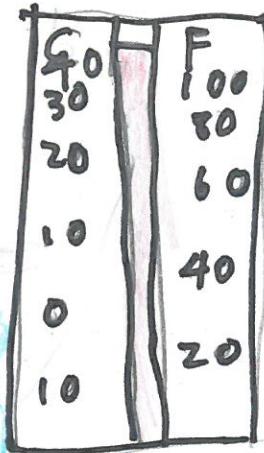
환경이 속상하면

뚝뚝 뚫뚝 비가 온다.

환경이 많이 안울면

빠지지지 빠지지지

땅이 갈라지는 건기



환경이 너무 속상하지



않도록 조심하자!

우리가 한 작은 나쁜 신호에도

환경이 대답해주는 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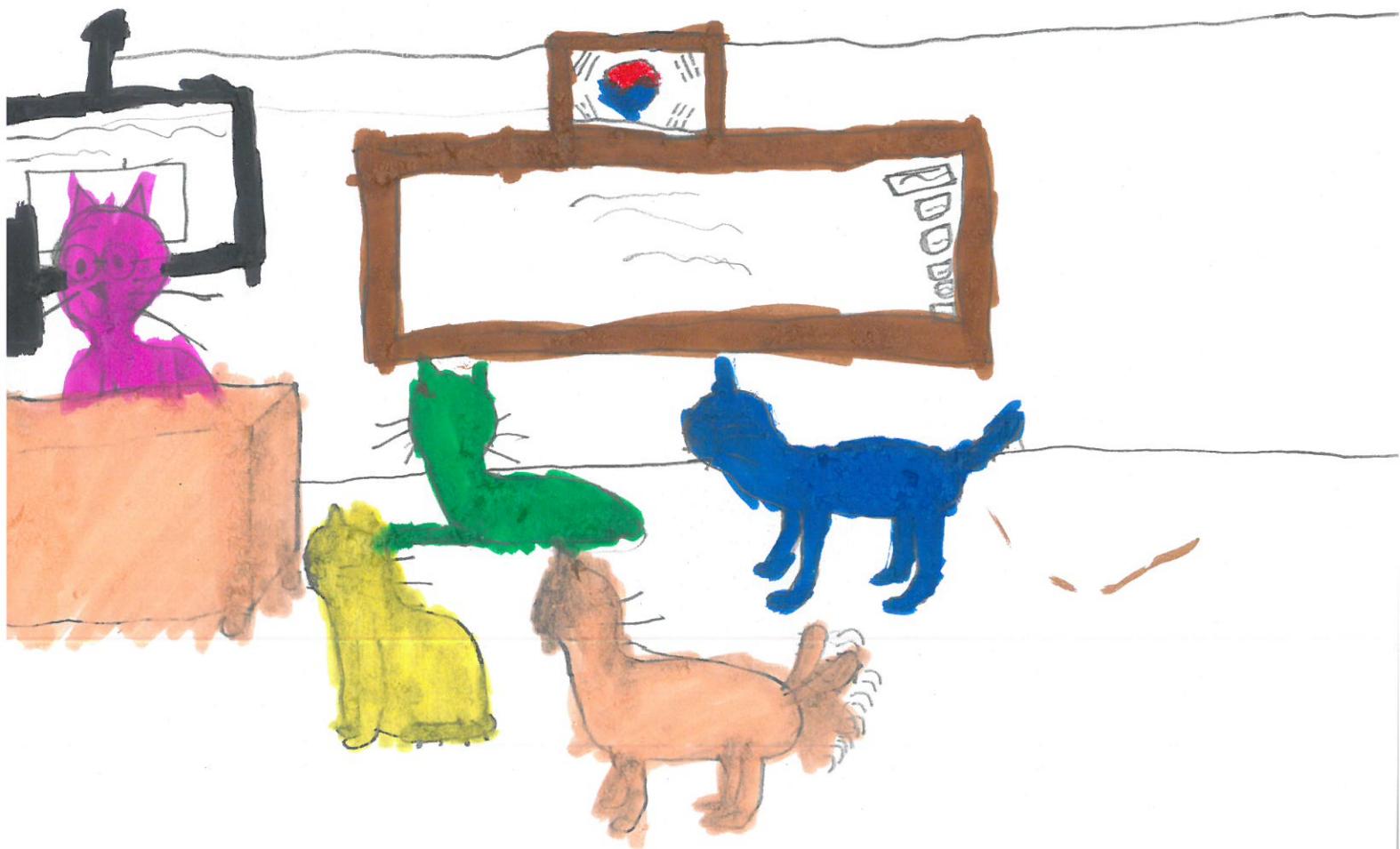
「고양이」

3-2

지운이: 오는

고양이들도 주업판이
있나요?

야옹~ 야옹~
주업을 듣는다.



축구공

3-2

글: 오윤빈

뻥 뻥
뻥 뻙 뻙
뻥 뻙 뻙 뻙 뻙
뻥 뻙 뻙 뻙 뻙 뻙
뻥 뻙 뻙 뻙 뻙 뻙 뻙
뻥 뻙 뻙 뻙 뻙 뻙 뻙 뻙

공이 터질것만 같다

큰 운동장에서

번개소리 낸다.



우리 음소리

3-2 01-07

글쓴이: 유아영

여집에 사는 아이가
울고 있다.

뚝뚝뚝

울고 있는 소리

그림이 예준 글 이여/준
강아지도 대답해주는구나
강가고 윤 모래밭에서
월월 짖으면서
대답하는 강아지
냄새도 잘 맞는

강아지

주인 말 잘듣는

강아지

세상에서 제일

빠른 강아지

그 작은 몸짓에

잘 달리는

강아지

3-2

이여/준



빗 물

글쓴이: 이지우
3-2

툭툭툭툭툭툭

빗물이 땅에 떨어진다

구름이

울고 있는 것 같다



칠판 도대답해 주는구나

3-2

지은이: 차은희

학년이 주로록 오르면서
칠판은 내 학년이 아는지

어려운 문제를 주는구나

문제가 어려운지 시간은
똑딱똑딱 빨리 지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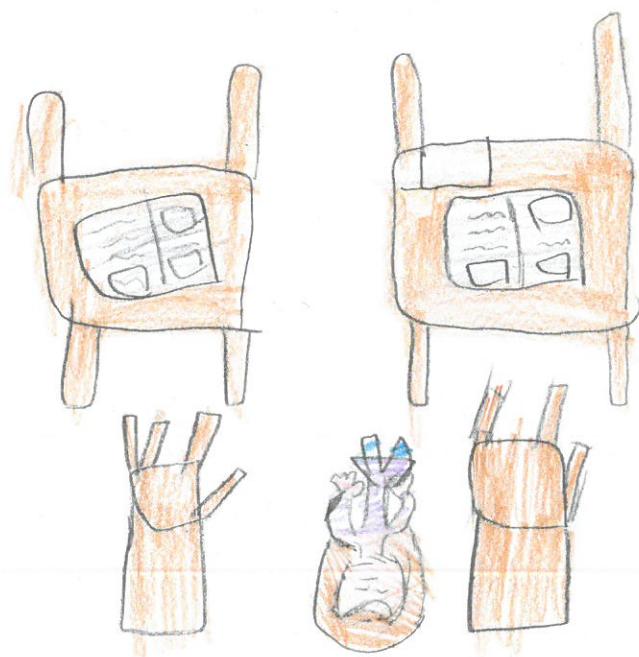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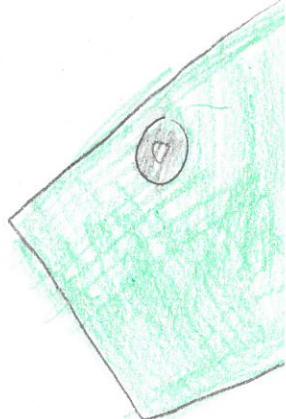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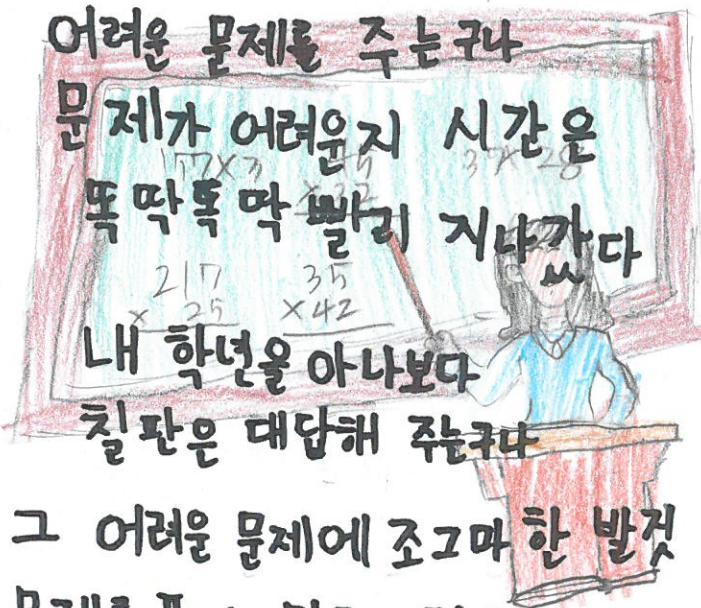
내 학년을 아나보다

칠판은 대답해 주는구나

그 어려운 문제에 조그마한 반것

문제를 풀게 만들어 주는구나

그래서 칠판은 대답해 주는구나



3학년 2반 16번

독감도

지은이: 초연우, 그림: 초연우

내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 따끈따끈

바이러스를 따라
깃털도 함께 들어왔다
- 엣취! 엣취!

독한약을 먹고나니
느껴까지 느릿느릿!
아주 무거운 돌 망이도 들어오고
쿨~쿨
코알라도 들어왔다

내 몸에

아주 많은 것들이 들어왔다
그래서
내 몸이 너무 무거워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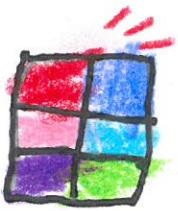
手稿

최은지

부스터 터터 터터 터터 터터
터터 터터 터터 터터 터터 터터
터터 터터 터터 터터 터터 터터



쿠키가 떠진다.



우리집 앞에서

큰 소리가 난다.

큰소리가 난다.



체육

글: 주연성 그림: 추운상

내동에
열탕이 가들어 왔다

- 화드록

불덩이를 떠라

체력이 빠져 나간다

- 헐레벌떡

뛰고나니

힘이 불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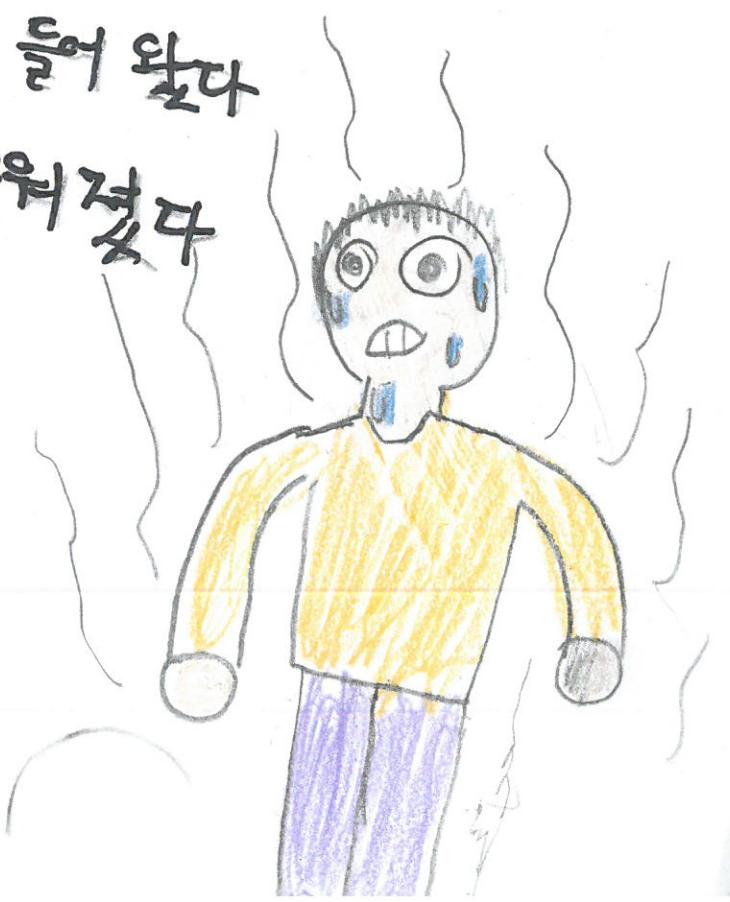
힘도 들어오고

장난꾸러기가 물어왔다

버울에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 왔다

그래서
내 몸이 아주 무거워졌다



[급식실] 3-2

지은이: 힘 예린



내 몸에
밥이 들어왔다

[꼭꼭]

밥을 따라

몹시 차가운 물도 들어왔다

[꿀꺽꿀꺽]

야채를 먹고 나니

[아삭아삭]

김치도 들어오고

[매콤]

김치찌개도 들어왔다

내 몸에

너무 많은 음식 들어왔다

그래서

내 몸이 아주 뚱뚱해졌다!



나무

3-3 강윤우

외로운 나무 한 그루

네가 울면 울어 주고

네가 웃으면 웃어 주고

네가 화가 나면 화내 주고

나무가 그늘을 만들어 주고

나무가 금새 더 커졌다

나는 나무가 좋다





강아지

3-3 김나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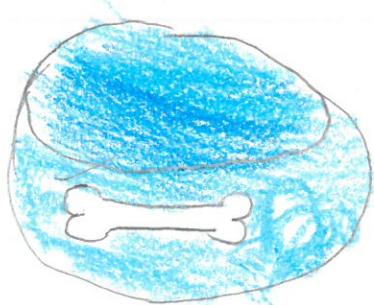
멍 멍

멍 멍 멍

멍 멍 멍 멍
멍 멍 멍 멍
멍 멍

배고프다고 난리다.

배고프다고 밥그릇 앞에서
난리를 친다.



파도

33

김도연

오늘은 바다 가는 날

하하 사람들이 웃을 때
끼죽끼죽 갈매기도 웃네

파도가 그걸 들었는지

쉬익쉬익 파도도 웃네

아. 작은 신호에도

파도는 대답해주는구나

그큰 물짓에

조그마한 소리

그래도 파도는 대답해 주는구나

3-3

축구

축구

3-3 김도영

운동장에 사는 아이들도

축구하는 시간인 것 같다.



뻥

구이을

한것 같다.

오 와 으으 대한민국 죄 고 오 오 오

거품

3-3

김하솔

'봉봉봉'
거품이 날아다닌다.



거품을 만지자
감쪽같이 '폭'하고 없어졌다.

'포로로록'
거품이 다시 생겼다.

거품도 목욕탕에서
파티를 한다.



강아지 소리

3-3 봄도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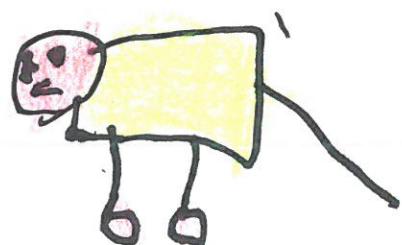
강아지 수영을 했다

탕탕탕탕탕 수영을 했다

왁자지껄 시끄러운 소리

웃었지 떠벌리 짖어

신나게 뛰어 놀았다



물놀이

3학년3반 박수정

차가운 계곡물에 한발 한발
내딛고 미끄덩
넘어지지 않게 조심 조심

하지만 돌에 있는 이끼 때문에

쿵!
넘어진다.

그때 잔잔했던 물이
진동처럼 퍼진다.

하 물이나에게 조심하라고
말해주는 구나.

풍선

3-3 이름: 백승아

내가 좋아하는 풍선
여러 가지 색깔의 풍선

팡!

풍선이 터졌다
깜짝 이야!

풍선이 터진다

작은 크기지만

소리는 작지 않다.

소리는 커지지 않는다.

달리기 소리

3-3 반 오 은 윤

학교에 사는 아이들도

달리기 시합이 있나보다

쿵쾅쿵쾅쿵쾅

아이들이 쿵쾅쿵쾅

운동장에서
달리는 소리



장난감총

3 -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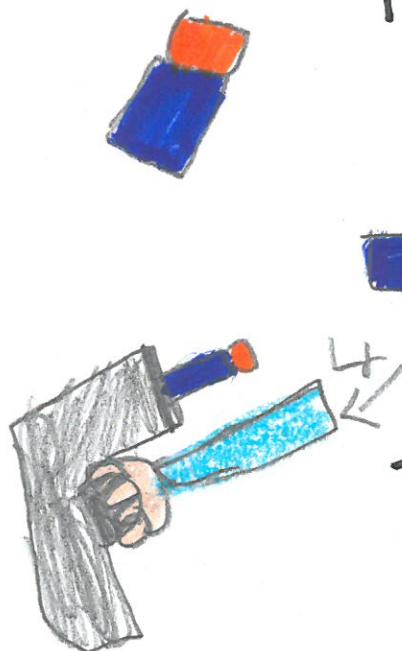
제작자: 오태양

피슉 피슉

피슝 피슝 피슝

피슉 피슝 피슉 피슝

피슉 피슉 피슉



장난감총을 쏜다.

작은 장난감상자에서
불꽃놀이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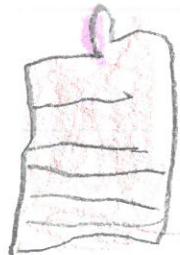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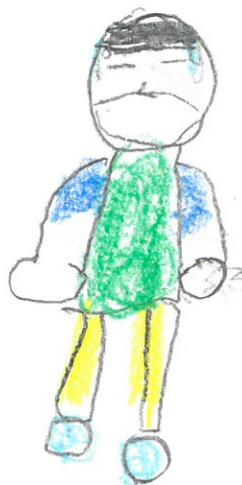
감기소리

3-3 이시안

감기에 걸린 아이들은
힘들가보다.

쿨룩쿨룩, 콩콩
힘들어하는

콧물, 기침소리



손흥민 3-3 이재윤

강 가 고운 잔디밭

발 가락으로 달린다

우사인 볼트처럼 달린다



잔디밭 간지러운 거

잔디밭 가만히 있다

아내 작은 싸인에도

손흥민도 대답은 해주는구나

손흥민 찰칵

서리며 나해주는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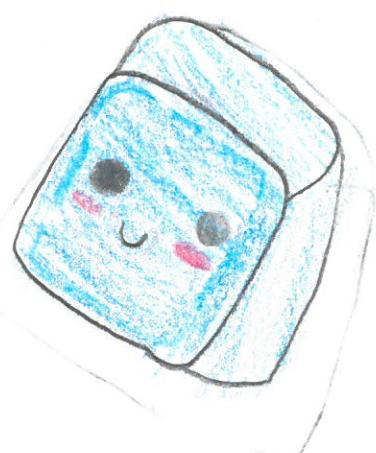
목감기

3-3 전소영

내몸에 고슴도치가 들어왔다.
파끔파끔



고슴도치를 따라
얼음친구도 들어왔다.
오들오들



약을 먹고나니
깜빡깜빡,
힘없는 전구도 들어오고
뜨끈뜨끈,
호빵도 들어왔다.



내몸에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왔다.
그래서



내몸이 아주 무거워졌다.

인사

3-3 전지아

친구 옆에서 나는
야! 라고 부른다.
친구가 날 보더니

안녕?

인사를 했다
앞에 계신 선생님
다가가 안녕하세요?

선생님께서 응~ 안녕?

이런 작은 말 한마디라도
모두 인사해주는구나



고양이

3-3 지다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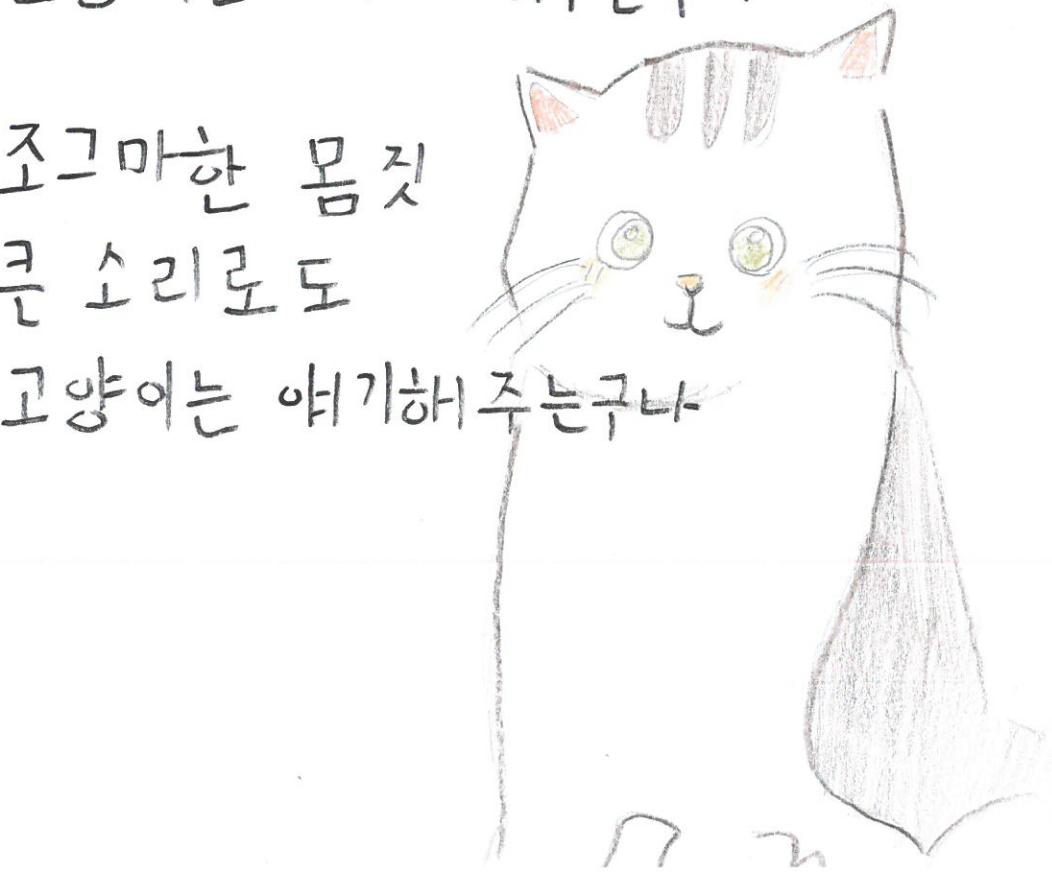
집 안에서
고양이의 소리가 난다
- 야옹야옹



고양이가 배고픈지
사료 옆에서 앉아있다

아, 고양이도 작은 신호에도
고양이는 얘기 해주는구나

조그마한 몸짓
큰 소리로도
고양이는 얘기해주는구나



내일은 체험학습 가는 날

3-3

이름: 최민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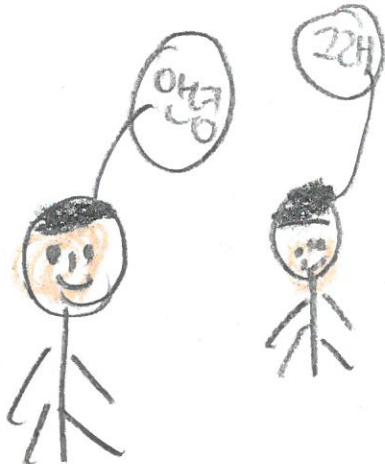
내일은 체험학습 가는 날

가슴이 두근두근 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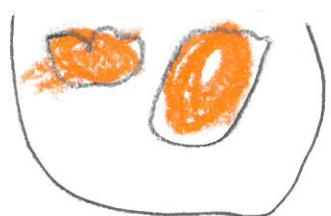
두근두근 두근두근

몸이 간질간질거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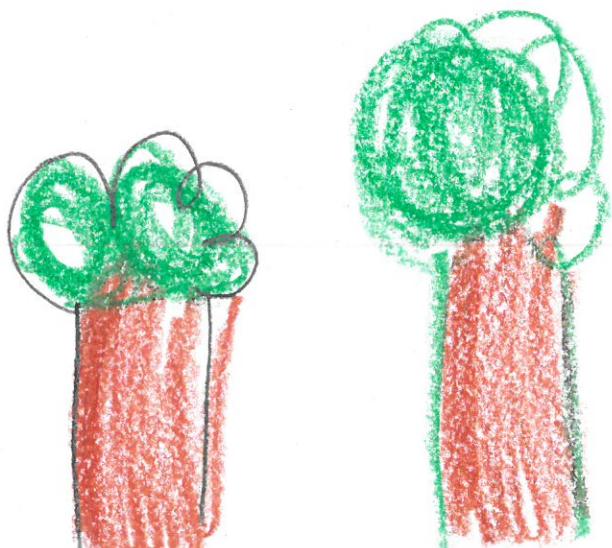
마음아 진정해!



아! 내 작은 신호에도
마음이 대답해주는구나



그 작은 마음 속에에도
설렘 이 느껴지는구나



강아지 소리

3-3: 초역 진

강아지들 에게도
언어가 있나보다

울울멍멍
산책하러
달려나가는 소리.



7

콜라

3학년 3반 최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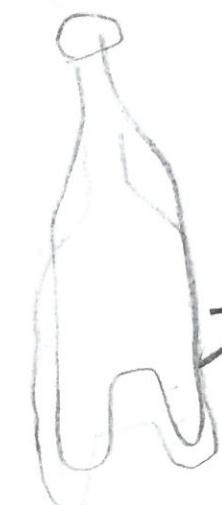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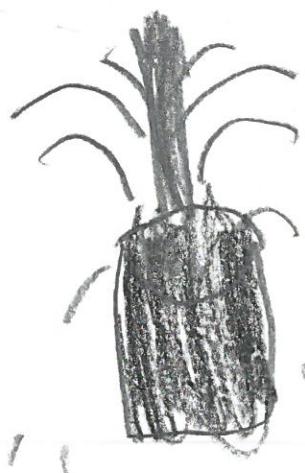
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



콜라가 터진다.



작은 병 안에서
폭죽을 터뜨린다.



캬!
캬!
캬!
캬!



감기

3-3 하나운

내 몸에
불덩이가 들어왔다.

-후근후근
불덩이를 따라
몹시 더운 사람도 들어왔다.
-뜨끈뜨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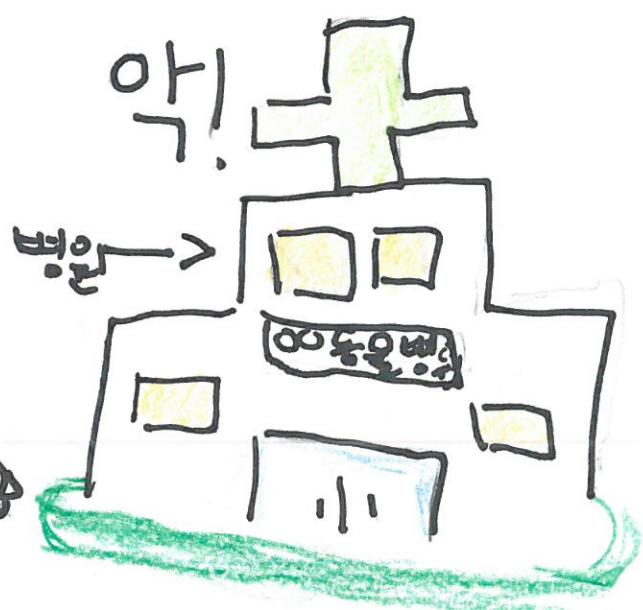
약을 먹고 나니
느릿느릿,
거북이도 들어오고
스르르,
잠꾸러기도 들어왔다.



내 몸에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왔다.
그래서

내 몸이 아주 무거워졌다.

악!



인형 뽑기

3-3

박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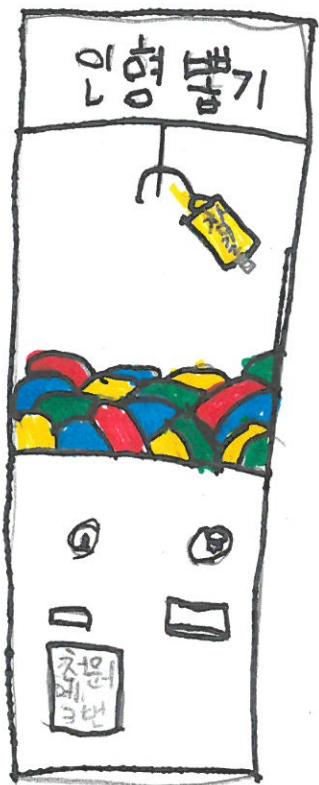
꽝 꽝

꽝 꽝 꽝

꽝 꽝 꽝 꽝

꽝 꽝 꽝
꽝 꽝
꽝 꽝

인형을 자꾸만 놓친다
기계에 참기름을 넣을 줄 알지
자꾸만 미끄러진다



감정

3-4 강건우

내 몸에

엄청나게 많은
감정이 들어왔다.

기쁨, 슬픔, 화남, 당황, 놀람
기쁘면 까르르,
슬플땐 훌쩍훌쩍,

화난땐 투덜투덜,
당황할땐 고개를 쟁우뚱 가우뚱,
놀랄땐 눈이 커진다.

수많은 감정들이 들어오지만,
그래도 기쁨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야겠다.



탕 후 루

3-4 김대웅

탕 텡 텡
탕 텡 텡
탕 텡 텡
탕 텡 텡
탕 텡 텡

탕 오드득

탕 후 루가 깨진다

과즙안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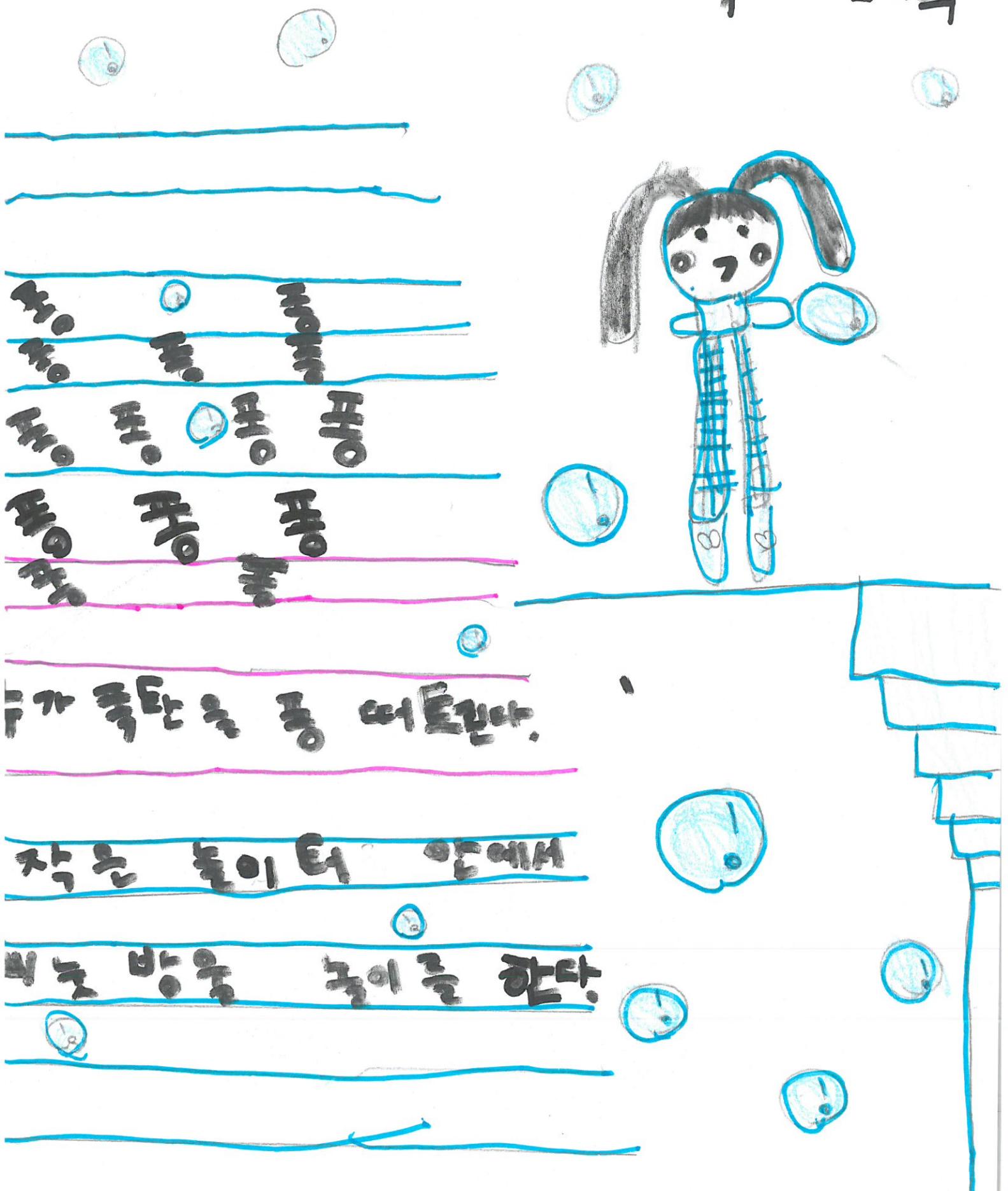
과일이

수영을 한다.



비눗방울

3-4
김서희



매미도 대답해주는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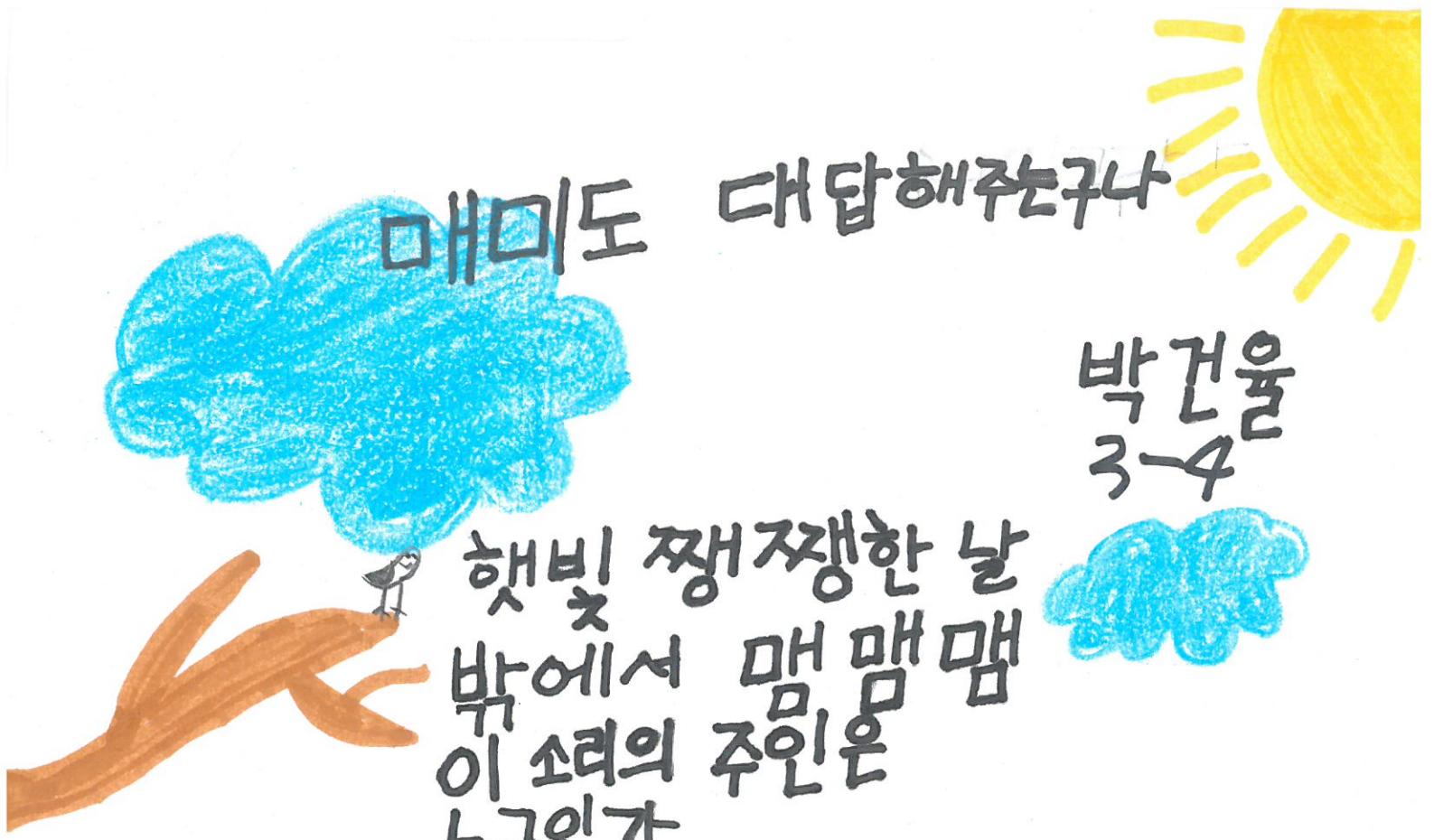
박건율
3-4

햇빛 쨍쨍한 날
밖에서 맴맴
이 소리의 주인은
누구인가

숲을 가도 맴맴
나무주변을 가도 맴맴

매미도 더운지
맴맴 거린다.

왠지 에어컨 틀어
달라고 하는
우리 같다.



치킨

지글지글

노릇노릇

지글지글 노릇노릇

지글지글

노릇노릇

치킨이 맛있게 구워 진다.

큰상자 안에서

펑~ 터진다.

잘먹겠습니다!!

맛다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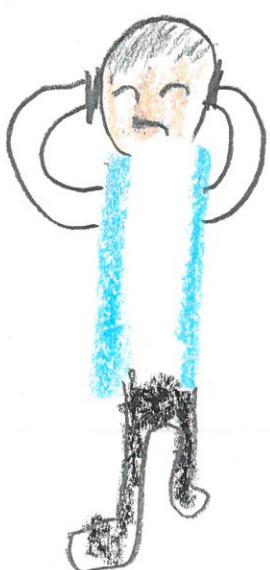
윷집

3-4 월

쿵 쿵
쿵 캄 쿵
쿵 쿠하 쿵 쿠하
쿵 캄 쿵 캄
쿵 쿵 쿵



윷집이 부서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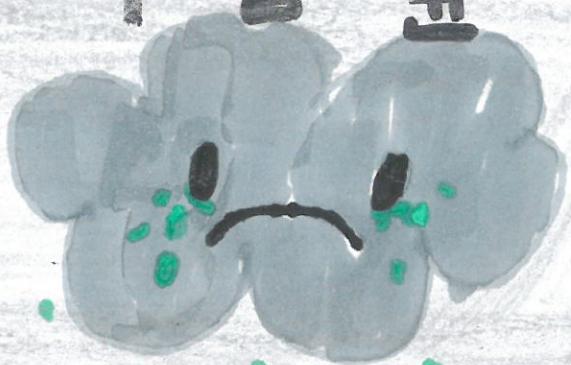


작은 집에서
로켓을 타다니

하늘도 살아있구나

3-4 쓰마모

어느날
비가 오고 있다.
하늘이 슬픈가보다.



이제 기분이 좋아졌나봐.

하늘에 무지개가 있다.



아, 지구도 살아있구나
기분이 있구나!



그럼 하늘에
이 작은 우리
그래도 하늘은 대답해주는구나



산도 대답해주는구나

3-4 유치아

산은 대답을 잘해
내가 안녕! 하면
산도 안녕, 안녕

산이 내말을 똑같이
안녕! 산이 말을 해

나의 친구처럼
대답을 해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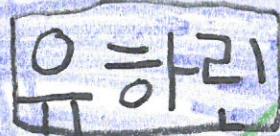
난 친구가 생긴 기분이었어

난 정말 좋았어

산을 올라가는 건
힘들지만 정말
괜찮아.

풀꽃들이

3-4



망

망

망

파망

망

망

망

파마인

파마인

망

망

하늘에서 번개가 친다.

크고 큰 하늘에서

여러 가지 번개가 친다.

망

점심시간



3-4

육아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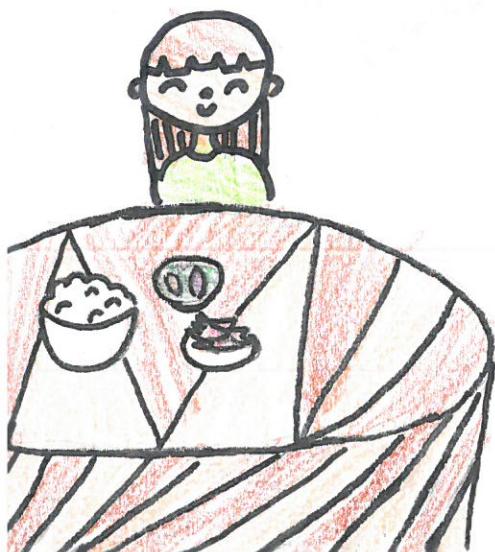
배에 사는 아이들도

점심시간이 있나 보다.

꼬르륵, 꼬르륵

배에서

밥 달라는 소리



충치

3~4 윤성원

내 입에

충치가 들어 왔다

- 짜끔 짜끔.

부풀어 오른 잇몸 따라

내 입에 ~~번짐마련한~~ 충치도
들어 왔다

- 고즈득 고즈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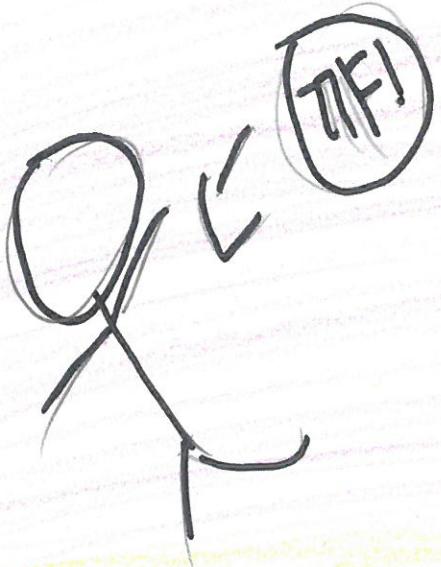
빨을 먹고 나니

충치가 신나서

내 입을 아주 잘 뒀다

그래서 벼름이

아주 아팠다.



폭탄

3-4 이서운

퍽 퍽 퍽 퍽 퍽 퍽 퍽 퍽 퍽 퍽 퍽 퍽

폭탄이 터진다.

작은 폭탄 안에서
폭탄놀이를 한다



[나의 감정]

→ 4월 15일(수) 흐림

나의 감정에

기쁨이 가득 어왔다.

하하호호.

기쁨을 따라

슬픔이 도들어왔다.

멍멍.

신

친구랑 싸우고 나니

버럭 버럭

버럭이 도들어오고

까칠까칠

까칠이 도들어왔다.

나의 감정에

너무 많았던 감정이 들어왔다.

그래서

내 몸이 아주 주무자워 졌다.

(춘간 소리)

3-4월 훈수

위 층에 사는 아이들이
달리기 시합을 하나보다

쿵쾅쿵쾅,
시합에서 이기고

뛰어가는 소리



구름도 대답해 주는구나
3-4장사이

차를 타는데

구름이 날 쫓아온다
멀리 가도.

그새 나도 모르게

가까워지고

아, 구름도
여행을 가는구나



우리 차가 멈추면

구름도 멈추고

술래잡기 중이구나

미술 대회

3-4 정승빈

내 몸에
피카소가 들어왔다
- 쑥쑥쑥삭
길장이 도풀어왔다
- 두근두근
대회가 끝나고나니
유~
안심이 도풀어오고
하향이 도풀어왔다
기쁨이 도풀어왔다

내 몸에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왔다
그래서
내 몸이 아주 가벼워졌다



바다도 대답해주는구나

3-4

정태주

비단가 고운 모래 수에서
E

원수로 으로원수

• **한국어를** **많이**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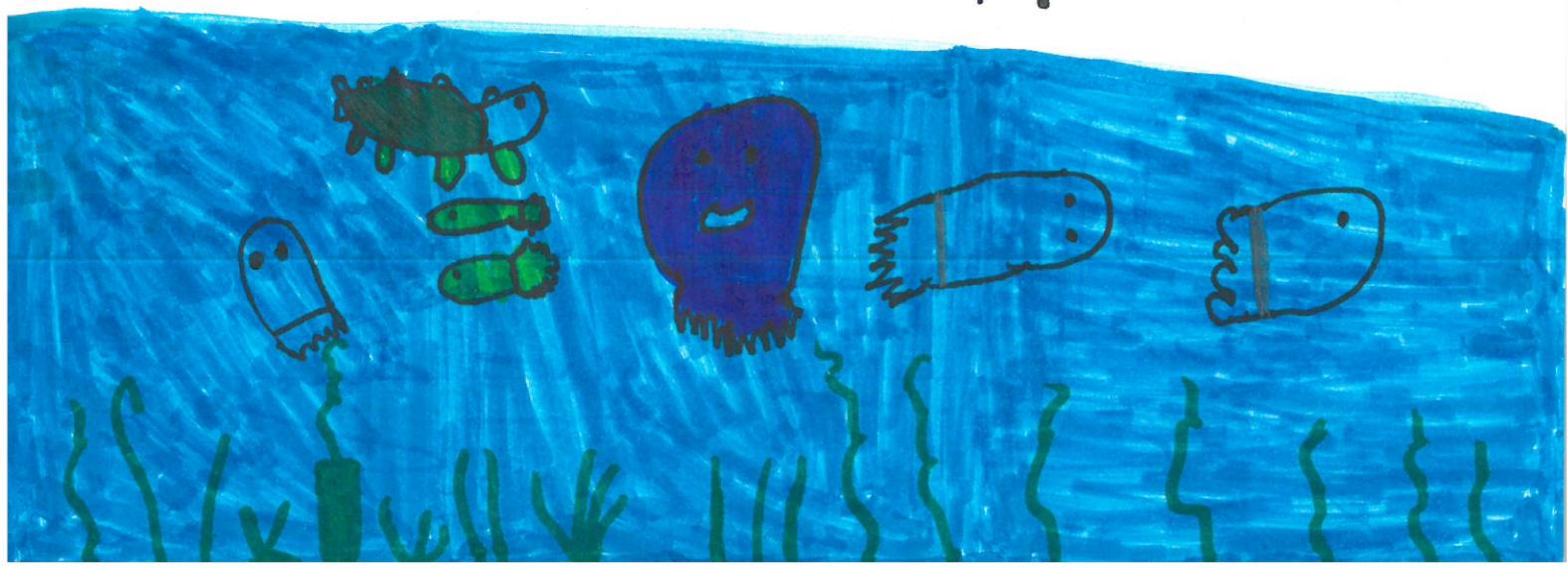
반다도 간지러우치

바닷물이 산금살금 밀려온다.

우리들의 작은 손동작에도
바다는 대답해주는구나.

구나다란 바다도

우리들의 작은 손동작에도
바다는 대답해 주는구나.



시범단



3-4

최우진

내 몸에
운동선수가 들어왔다.

땀이 주륵주륵.

운동 선수를 따라

BB



희망과 의지도 들어왔다.
도복 소리가 팡팡

시범단



시범단을 많이 하니
점점 적응이 되었다.



발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 펑펑.

내 몸에 너무 좋은 것들이 들어왔다.

그래서



난 태권도 선수가 될거다.